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역대 최다 참가

17개 시·도 2만7606명 신청...제주특별자치도 774명
10월 7~13일 울산광역시 일원서 3년 만에 정상 개최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역대 최대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체육회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신청 마감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만7606명의 선수 및 임원이 대회 참가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참가 선수단은 역대 전국체육대회 최다이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지난 8월 3일부터 25일까지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8837명의 임원과 1만8769명(남 1만2006명, 여 6763명)

의 선수가 신청해 역대 최다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 서울에서 정상 개최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2만4988명)와 비교하면 약 11%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로 3년만의 정상 개최라는 선수단의 기대와 합기도, 축구 종목의 신규 도입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326명을 비롯 서울(2086명), 경북(2013명), 경남(2024명), 전남(1809명), 충남(1788명), 전북(1720명), 부산(1713명) 순이다. 제주주는 774명으로 가장 적은 세종(609명)보다 165명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49종목에 걸쳐 울산광역시 일원 등 73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한편 9월 1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 문수실내체육관에서 전반적인 대회 운영 설비 및 토너먼트 종목대진 추첨을 위한 시·도대표회의가 개최된다. 각 시·도체육회 및 시·도교육청, 회원종목단체 등 약 500명이 참석하는 대표자회의는 대회 운영 안내, 대진추첨 주요사항 안내, 토너먼트 종목(26종목 6개조)의 대진 추첨 순으로 진행된다. 대진추첨에 따라 시·도별 예상성적을 가늠할 수 있게 돼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LG 오지환·키움 안우진 대기록 '눈앞'

20홈런-20도루·10년 만의 토종 '200K' 도전

출범 40년을 맞은 프로야구 정규리그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대기록 달성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LG 트윈스의 주장 오지환(32)은 20홈런-20도루에 도전한다. 호타준족의 상징인 20-20클럽에 가입한 사례는 지난해까지 55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오지환은 홈런 20개를 이미 채웠으며 도루 3개를 보태면 20-20클럽에 이름을 올린다. 2009년 데뷔한 오지환은 2016년 처음으로 홈런 20개를 쳤을 때 도루 17개에 머물러 아쉽게 20-20클럽을 놓쳤다. 두 번째 도전인 이번엔 남은 경기에서 세 번만 베이스를 훔치면 이력에 훈장을 하나 더 한다. 최근 20-20을 달성한 선수는 에런 알테어로 홈런 32개에 도루 20개를 남겼다. 30홈런-30도루는 NC의 에릭 테임즈가 2015년 역대 8번째 위업을 달성한 이래 7번째 맥이 끊겼다. 테임즈는 그해에 내친김에 47홈런-40도루를 기록해 KBO리그에서 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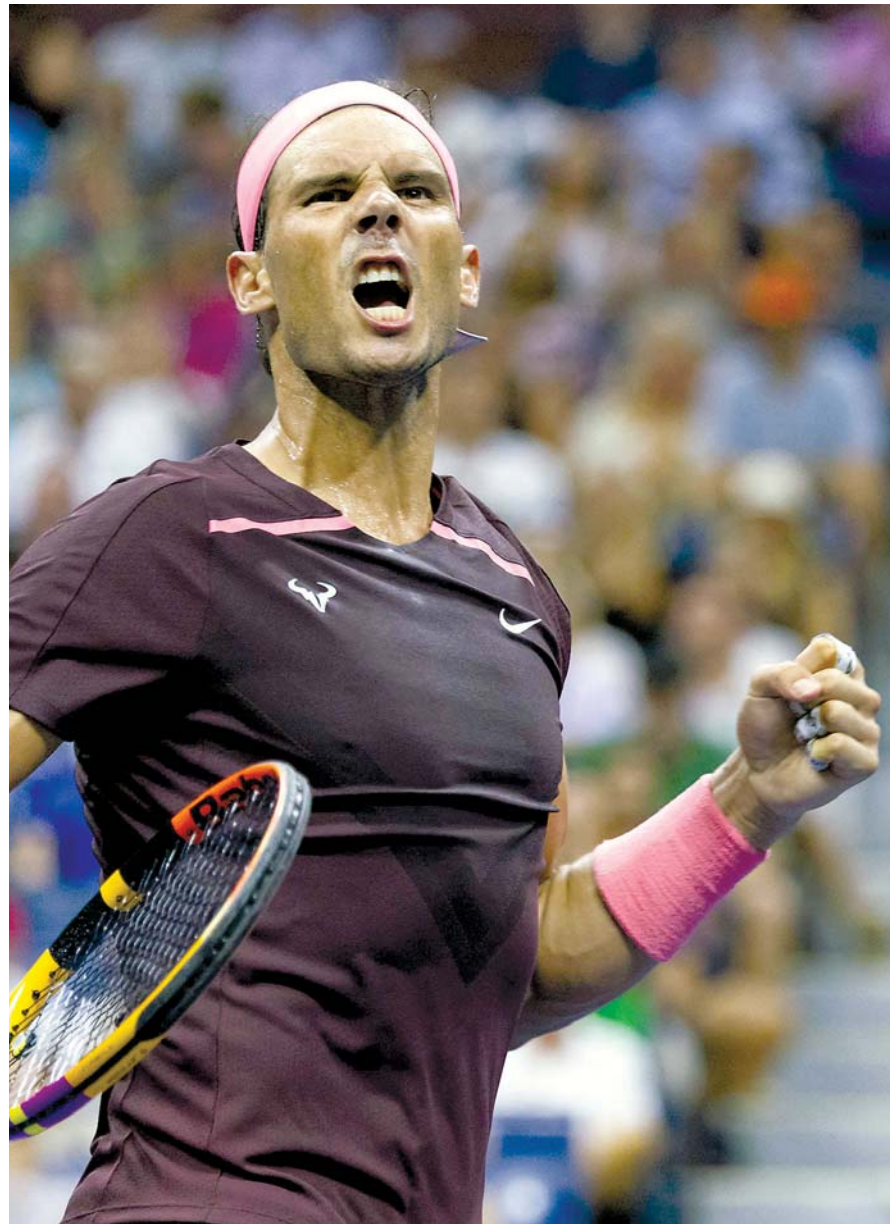
한 40홈런-40도루 클럽을 개척했다. 올해 가장 돋보이는 투수로 성장한 안우진(23)은 2012년 한화 이글스에서 된 류현진(210개·현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래 국내 투수로는 10년 만에 시즌 탈삼진 200개 사냥을 앞냈다. 안우진은 30일 현재 올 시즌 24경기에 등판해 159이닝 동안 삼진 176개를 낚아 이 부문 1위를 질주한다. 이닝당 탈삼진은 1.11개다. 안우진의 시즌 평균 투구 이닝(약 6%이닝)과 이닝당 탈삼진을 고려해 앞으로 5번 정도 더 등판한다고 가정하면, 안우진은 남은 경기에서 삼진 35~36개를 추가할 수 있어 200탈삼진 고지를 밟는다. 류현진이 10년 전 탈삼진 1위를 차지하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이래 탈삼진 타이틀은 외국인 투수의 전유물이 됐다. 차우찬(현 LG)이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던 2015년 탈삼진 194개로 1위를 차지했을 뿐 외국인 투수가 모두 '닥터 K'의 명예를 가져갔다. 연합뉴스

테니스 세계 2위 츠베레프 한국 온다

2022 ATP 코리아오픈 참가 선수 명단 확정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랭킹 2위 알렉산더 츠베레프(독일) 등 세계적인 강자들이 9월에 국내 팬들 앞에서 실력을 겨룬다. 코리아오픈테니스조직위원회는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테니스코र्ट에서 열리는 2022 ATP 코리아오픈 참가 선수 명단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랭킹 톱 10에 드는 선수 중 3명이나 코리아오픈 우승에 도전한다. 1번 시드로 나서는 츠베레프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통산 19승으로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우승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ATP파이널스에서 우승했고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단식 금메달을 따냈다. 7위 카스페르 루드(노르웨이)는 올 시즌 3승을 달성하고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상승세를 보인다. 9위 캐머런 노리는 영국 테니스의 새 희망으로 기대를 모으는 선수다. 기복 없는 플레이가 강점인 노리는 올해 2승을 포함해 통산 4

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현역 미국 선수 중 가장 랭킹이 높은 12위 테일러 프리츠, 역동적인 플레이가 인상적인 테니스 사포발로프(21위·캐나다), 지난 신시내티 마스터스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5위·그리스)를 꺾고 우승하며 세계랭킹 152위에서 29위로 급상승한 보르나 초리치(크로아티아) 등이 출전한다. 작년 아스타나오픈에서 생애 첫 ATP 투어 우승을 차지한 권순우(81위·당진시청)는 국내 선수로 유일하게 참가한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랭킹 포인트 250점과 함께 우승 상금으로 17만 35달러(약 2억3000만원)를 받는다.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한 선수는 1만 1990달러(약 1600만원)를 받는다. 총상금은 128만달러(약 17억3000만원)이다. ATP 250시리즈로 열리는 올해 코리아오픈은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열린 KAL컵 코리아오픈 이후 26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ATP 투어 대회다. 연합뉴스



축신의 포효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1라운드에서 린키 히지카타(198위·호주)를 상대로 점수를 따 후 포효하고 있다. 그는 세트스코어 3-1(4-6, 6-2, 6-3, 6-3)로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스포츠로 하나되는 축제의 장 펼쳐져

제1회 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3-4일 인천남동체육관에서

전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인 '제1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이 오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들 간 인천광역시 남동체육관 등 5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축전은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어울림 종합대회'로서 15개 시·도 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다양한 어울림 프로그램 및 종목 확산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어울림 종합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경기에 참여

하는 통합스포츠 대회를 말한다. 이번 대축전에는 정식 6종목(배드민턴, 탁구, 볼링, 파크골프, 당구, 수영)과 참여종목 1종목(창작댄스)이 운영되며 개최식 행사장(인천남동체육관) 주변에는 고가트, 레이저 사격, 실내조정 등 참가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종목도 운영할 예정이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의 장인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을 시·도 순환개최로 정례화할(연 1회) 예정이다. 개최식은 3일 오후 2시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배드민턴, 탁구, 볼링, 파크골프, 당구 등 5개 종목 임원·선수 70여명이 출전하는 제주선수단은 지난달 26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2층 체육관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조상윤기자

★일련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투어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uhongik.co.kr

못말리는 제주직항 여행

예약폭발 마감임박

제주직항 전세기 오사카 2박3일

[9/29] 단 하루 849,000

퍼플섬(진도) 4인실
알찬여행 1박2일
9/23, 10/1
380,000

강원도 2인실
실속여행 2박3일
매일출발
480,000~

동남아/유럽 발리 유럽 허니문 코사무이 등
상담환영
단독행사/스냅사진

설악산 4인실
단풍여행 2박3일
10/21, 10/28
564,000원

내장산 4인실
가을여행 2박3일
10/28, 11/4
539,000원

서해안 4인실
감성여행 2박3일
10/07, 11/12
510,000원